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8면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에 명시' 한목소리

전주매일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음 9월 14일) 제38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현안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
종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현안은,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가지다.

먼저,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은 무주~성주~대구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고속도로망 완결과 영호남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연결성 강화, 태권도원 중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북 광역권의 핵심 국가사업으로,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전북권의 동서 교통축 완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으의 예타 대상 선정은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지역이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이주와 이후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지역을 되살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복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약 182만㎡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437억원(국비 1,691억원, 지방비 746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생태통로 조성 △자연형 하천 복원 △계단식 습지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이다.

예타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지정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경제성·정책성·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구 김제공항 부지 일원과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 종자산업 기반을 집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총 273ha(김제공항부지 13ha, 새만금 종자생명단지 260ha) 규모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38억원(국비 1,683, 지방비 55)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비즈니스 지원시설, 기후환경조절 스마트 온실, 종자 유통 및 물류시설 등이다.

전북도는 기존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전북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글로벌 종자산업 허브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며, 연구개발, 생산, 가공,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종자산업 혁신 거점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끝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확보와 조속한 예타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 정책성 평가 대응 등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레이첨단소재 PPS 2호기 준공 지난달 31일 새만금산단 2공구 내에서 열린 도레이첨단소재㈜ PPS-2호기 준공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그룹 회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주 신임 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민심과 함께 호흡할 것"
내년 지방선거 진두지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오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윤준병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치열한 경합으로 진행됐다.

선거는 온라인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이달 1일 오후 8시까지 2일간, 전국대의원은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는 권리당원 90%, 대의원 10%의 비율로 반영됐다.

윤준병 후보는 권리당원 득표율 57.42%, 전국 대의원 득표율 57.64%로 최종 승리를 거뒀다. 함께 경쟁한 신영대 후보는 권리당원 42.59%, 전국 대의원 40.26%를 얻었다.

이날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은 1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대의원의 경우, 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 2면에 계속

/이만호 기자

"농촌 근로환경 개선 모델"

민주 이원택 의원, "김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선정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주장해 온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김제시는 농번기 인력 확보와 근로자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되면서 지역민들은 반색을 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김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교동 소재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총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8년으로, 2~4인실 20실 규모(약 40명 수용)의 숙소와 세탁실·취사실·휴게공간 등 복지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최근 농촌 현장은 고령화 심화와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숙소 부족은 일손 확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5년 현재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수는 560명으로 최근 3년간 5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숙사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농가의 인력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 현장의 인력난과 주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농촌 근로자의 주거 안정은 인력난 완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김제시 기숙사 건립이 농촌 근로환경 개선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차기 도 제1금고 '농협은행'·제2금고 '전북은행'

전북자치도 금고 지정심위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도 금고로 농협은행을 제1금고, 전북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현 약정기간에 대비해 새 금고 지정 대상을 심의한 결과,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제1·제2 금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2개 항목의 특별회계, 기금 4개 항목을,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 항목을 맡게 된다.

그간에는 운용 규모에 편차가 컸으나 이번 선정에서는 도에서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자 공고문에 명시한 점이 눈길이 간다.

이번 심사는 올해 5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고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4점)' 항목이 신설돼, 지역경제에 기여한 금융기관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심의위원회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금고 신청 기관 관계자가 직접 추첨을 실시하고 감사관실 직원이 입회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통해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11월 중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를 맡아 전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함께 밝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전력망 확충에서 시작됩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곁자리에 한국전력